

호랑이 '도약' 혹은 '침체' LG전 보면 안다



브룩스

T 타이거즈 전망대

들쭉날쭉 타선에 선발 전력도 약화
4위 LG에 1.5게임 차 밀리고
6위 KT엔 반게임 차 추격 당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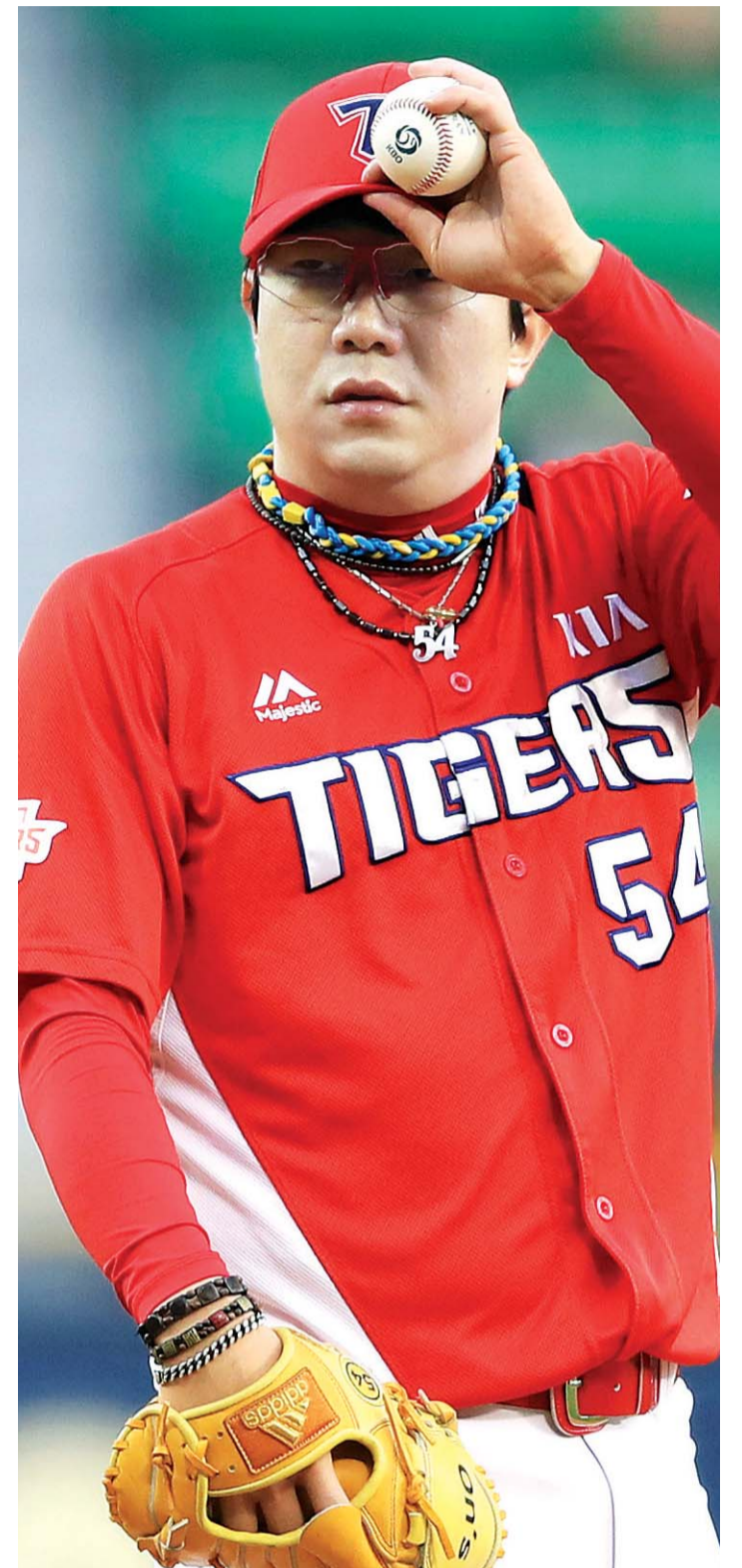
이번주 LG·SK와 6연전
LG에 시즌 2승 4패로 열세
잔여경기도 10개 구단중 최다
기선제압 관건...브룩스·양현종 역할 중요

■ KBO 중간순위 (10일 현재)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게임차
1	NC	75	47	2	26	0
2	키움	81	48	0	33	3
3	두산	78	43	2	33	5.5
4	LG	79	43	1	35	6.5
5	KIA	75	40	0	35	8
6	KT	75	39	1	35	8.5
7	롯데	74	38	1	35	9
8	삼성	78	37	1	40	12
9	SK	78	25	1	52	24
10	한화	77	20	1	56	28.5

'LG 잡아야 4강 간다.'
KIA 타이거즈의 순위 싸움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주 불펜의 핵심 박준표가 손가락 인대 부상을 당했고, '돌격대장' 이창진은 햄스트링 부상으로 쓰러졌다.
윌리엄스 감독이 시즌 목표로 '꾸준함'을 줄곧 강조하고 있지만 들쭉날쭉한 타선은 여전하다. 4·5선발 이민우와 임기영도 최근 페이스가 좋지 못하다.
여러 고민이 쌓인 지난주 KIA의 시작과 끝이 좋지 못했다.
챔피언스필드 관중석이 열린 지난 4일 선발 이민우가 5이닝 6실점을 하면서 LG 트윈스에 5-15 대패를 당했다. 한 주의 마지막 날이었던 8일에도 전날 역전승의 여운을 살리지 못하고 NC 다이노스에 1-8패를 기록했다. 임기영이 3회를 버티지 못했고, 4개의 안타와 9개의 볼

넷을 얻어낸 타자들은 1점을 만드는 데 그쳤다.
특히 8일 패배로 올 시즌 KIA의 일요일 성적은 2승 11패가 됐다.
비로 치르지 못한 한 경기를 제외한 5경기의 성적은 2승 3패, 순위는 그대로 5위다. 하지만 4위 LG가 1.5경기 차로 반격을 더 멀어졌다.
KIA는 선발·부상·수비·집중력이라는 종합적인 고민을 안고 잠실로 향한다. 장수를 바꿔 11일 LG와 다시 만난다.
KIA는 6월 7일 두산전 이후 두 달 여 만에 잠실을 찾는다. 오랜만에 서울팬들을 만나게 됐지만 최근 기억이 좋지 않다.
앞선 두산 원정에서 KIA는 시즌 첫 스윙패를 당했다. 이중 두 경기는 1점 차 역전패였다.
잠실 승리의 기억은 지난해 여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끄집어낼 수 있다. 6월 23일 잠실 LG전에서 7-0으로 이긴 뒤 이후 내리 패배만 쌓았다.
2019년 7월 27일 두산전 1-12, 대패 이후 KIA는 11경기에서 서울팬들에게 승리의 기쁨을 선물하지 못했다.
잠실 11연패 탈출과 4위 탈환을 목표로 떠나는 원정길, LG전 열세 만회도 목표다. KIA는 올 시즌 LG와 6번의 맞대결에서 2승 4패를 기록하고 있다.
브룩스의 어깨가 무겁다. 지난주 선발진 중 유일하게 브룩스만 제 몫을 하면서 승리투수가 됐다.
두 경기 연속 8이닝 1실점의 호투로 팀의 승리를 책임졌던 브룩스가 다시 또 에이스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양현종의 '이닝'은 순위 싸움의 중요한 요소가 됐다.
양현종은 지난 7월 5경기과 8월 1경기 등 최근 6경기에서 29.2이닝을 소화하는 데 그쳤다. 퀄리티스타트는 7월 30일 KT전 6이닝 3실점이 유일하다. 두 경기에서는 각각 4회와 5회를 채우지 못하고 물러났다.
양현종이 흔들리면서 초반 싸움에서 KIA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민우, 임기영의 등판도 일찍 끝나면서 불펜진의 부담이 커졌다. 여기에 박준표까지 부상으로 자리를 비우면서 마운드 운영에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번 잠실 시리즈에는 3승 이상의 가치가 담겨있다. 4강 힘겨루기 상대인 LG와 올 시즌 6경기밖에 치르지 않았다. 앞으로 가장 많은 12경기를 치러야 하고, 다음 주에도 대결이 예정되어 있다.
KIA는 14일부터 안방에서 SK와 이인즈와 주말 3연전을 치른 뒤 다시 잠실로 향해야 한다. 2연전 일정이 시작되는 18일 KIA의 상대가 또 LG다. 4강 라이벌과의 기싸움에서 밀리면 안 되는 중요한 시리즈인 셈이다.
KIA가 잠실 연패를 끊고 순위 싸움에 속도를 낼지 눈길이 쏠린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양현종

전남, 무패행진 스톱

'K리그' 서울에 1-2 패...7위로 추락

전남드래곤즈의 무패행진이 중단됐다.
전남이 지난 9일 광양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서울이랜드와의 2020 K리그2 14라운드 경기에서 1-2로 패했다. 전남의 5경기 연속 무패행진이 중단됐고, 순위도 7위로 하락했다.
승점 1점 차로 전남을 추격했던 서울이랜드는 6승 3무 5패(승점 21)로 3위에 올라섰다. 3위 서울이랜드부터 7위 전남까지 승점 2점 차에서 치열한 순위 싸움을 벌이게 됐다.
전반전이 0-0으로 마무리됐지만 후반 시작과 함께 득점포가 가동됐다. 서울이랜드가 먼저 움직였다.
후반 1분 고재현이 왼발로 전남의 골망을 흔들었다. 그러자 후반 4분 전남이 교체카드를 사용하며 바로 대응에 나섰다.
'브라질 특급' 에르난데스를 넣어 분위기를 바꾼 전남이 후반 11분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오프사이드 판정이 나오면서 줄리안의 골이 인정되지 못했다. 몇 차례 슈팅이 소속 없이 끝난 뒤 후반 32분 서울이랜드 박성욱에게 두 번째 골을 허용했다.
전남은 후반 종료로 앞두고 득점 기회를 얻었다. 후반 43분 김현욱이 페널티킥을 얻어낸 뒤 직접 키커로 나서 골대를 갈랐다.
하지만 전남이 추가골 사냥에 실패하면서 1-2패로 경기를 마무리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리그 관중석 25%까지 개방

K리그의 관중석이 최대 25%까지 개방된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0일 "문화체육관광부의 프로스포츠 관중입장 확대 지침에 따라 오는 14일 K리그1 16라운드 성남과 부산의 경기부터 관중 수용 인원을 최대 2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월 8일 무관중으로 개막했던 K리그는 지난 8월 1일부터 경기장 좌석의 10% 이내 범위에서 제한적 유관중 경기를 진행했다.
그리고 앞선 7일 문화체육관광부가 프로스포츠 관중 입장 허용 인원을 전체 관중석의 최대 30%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하자, 관중석을 확대 개방하기로 했다.
연맹과 각 구단이 좌석배치도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좌석간 거리두기 기준을 완벽하게 준수하기 위해서는 관중석의 최대 25%까지만 개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지정좌석간 '2좌석 또는 1m 이상'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김여울 기자 wool@



대니엘 강 '축배의 계절'

LPGA 마라톤 클래식 우승 2주 연속... 리디아고, 막판에 무너져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재개된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에서 재미교포 대니엘 강(미국)의 상승세가 매섭다.
대니엘 강은 10일 미국 오하이오주 실베이니아의 하일랜드 메도스 골프클럽(파71)에서 열린 LPGA투어 마라톤 클래식 최종 라운드에서 3언더파 68타를 쳐 4라운드 합계 15언더파 269타로 우승했다.
리디아고(뉴질랜드)와 조디 이워트 새도프(잉글랜드)를 1타차로 따돌린 대니엘 강은 일주일 전 드라이브 챔피언십 제패에 이어 2주 연속 우승 기쁨을 누렸다.
LPGA투어에서 2주 연속 우승은 2017년 평산산(중국)이 토트 재팬 클래식과 블루베리LPGA에서 내리 우승한 이후 3년 만이다.
올해 맨 먼저 2승 고지에 오른 대니엘 강은 25만5000달러의 우승 상금을 받아 상금랭킹 1위(56만6000달러)로 올라섰다.
대니엘 강은 올해 출전한 LPGA투어 4개 대회에서 2승을 포함해 3차례 톱10에 이름을 올리는 초강세를 이어갔다.
세계랭킹 2위 대니엘 강은 '필생의 목표'라는 세계랭킹 1위

자리에도 성큼 다가갔다.
대니엘 강은 "오빠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말했다. 그 말이 맞았다"고 역전 우승을 기뻐했다.
리디아고에 4타차 2위로 최종 라운드에 나선 대니엘 강은 한때 5타차까지 벌어졌지만 1타차까지 추격한 끝에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리디아고가 더블보기로 무너진 덕에 역전승을 거뒀다.
리디아고는 "내가 생각한 결과는 아니었다. 오늘은 내가 우승할 날이 아닌 것 같다"면서 "대니엘 언니는 보기 다음에는 꼭 버디로 반전했다. 정말 잘했다"고 말했다.
2오버파 73타를 적어낸 리디아고는 28개월 만에 우승의 꿈을 접고 조디 이워트 새도프(잉글랜드)와 함께 공동 2위에 만족해야 했다.
이민지(호주)는 13언더파 271타로 4위를 차지했다.
신지은이 한국 선수 가운데 가장 높은 공동 20위(6언더파 278타)로 대회를 마쳤다. 신인 전지원이 공동 34위(4언더파 280타)에 올랐고 양희영은 공동 38위(3언더파 281타)에 머

LPGA 투어 한국(계)선수 우승 일지

2020년 기준
박희영 ISPS 한디빅 오픈(2.9)
박인비 ISPS 한디 호주여자오픈(2.16)
대니엘 강 드라이브 챔피언십(8.3)
마라톤 클래식(8월10일)
*우승 날짜는 한국 시간

대니엘 강
• 출생 1992년 10월 미국 출생
• 신체 167.6cm
• 데뷔 2012년 LPGA
• 최근 LPGA 수상 경력
• 2017년 KPMG 위민스 PGA 챔피언십
• 2018년 뷰익 LPGA 상하이
• 2019년 뷰익 LPGA 상하이

물렀다. 전영인이 공동 53위(1언더파 283타), 강혜지와 전인지는 공동 59위(이븐파 284타)에 그쳤다. /연합뉴스